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지각된 통제감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문제 지향의 매개효과 검증\*

조 성 연<sup>†</sup>

조 한 익

한양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지각된 통제감이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문제 지향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343명의 4년제 대학생과 71명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걱정 척도(PSWQ),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US), 개정된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K-ACQ-R), 개정판 사회적 문제 해결 척도(PSPI-R) 중 부정적 문제 지향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차와 성차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네 변인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지각된 통제감, 부정적 문제 지향 간의 구조적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부정적 문제 지향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지각된 통제감을 매개하였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지각된 통제감의 직접 경로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문제 지향에서 전문대 학생의 점수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네 변인에서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으나 다집단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제한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걱정,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지각된 통제감, 부정적 문제 지향

\* 본 연구는 조성연(2014)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지각된 통제감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문제 지향의 매개효과 검증”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성연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1498 / E-mail: tinkywinky@hanmail.net

## 서 론

최근 걱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걱정을 설명하는 변인 및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한 걱정은 범불안장애의 핵심적인 진단기준이며 범불안장애는 걱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사회적, 직업적, 기타 영역에서 고통이나 손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A, 2013). 국내 범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2011년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12.5% 증가하였고 불안장애의 비율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편으로 밝혀졌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2011).

걱정은 혐오적인 사건이나 결과를 피하도록 하고 대처할 준비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이점을 지니지만 병리적인 걱정은 위협적인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게 한다 (Mathews, 1990). 걱정의 주제는 가족, 재정, 대인관계, 업무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Craske et al., 1989) 한 가지 걱정에서 시작하여 다른 걱정으로 쉽게 변화된다. 일단 걱정이 시작되면 여러 생각들을 잘 통제할 수 없으며 파국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지나친 걱정으로 발전하게 된다(유성진, 신민섭, 김중술, 2003).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안, 우울, 적대감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Borkovec et al., 1983a) 걱정은 범불안장애(이정은, 조용래, 2007)를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 장애에 걸쳐 공통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둔 치료적 개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Kertz et al., 2012). 특히 대학생은 노년 집단보다 더욱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Gould & Edelstein, 2010; Hunt, Wisocki, & Yanko, 2003; Kertz et al., 2012) 국내 불안장애의 일년유병률은 20대에서 가장 높아서(보건복지부, 2011)

대학생의 걱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안장애의 인지과정을 밝히는 개념으로서 걱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인지평가경향을 보이고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가 파국적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통제감이 낮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안적 사고를 제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각한다(권석만, 유성진, 정지현, 2001; 유성진 외, 2003). 걱정이 유지되는 기제를 살펴보면, 인지적 편향과 과잉각성이 유발되거나 회피행동과 같은 대응행동이 촉발된다(조선미, 2008). 최근에는 인지편향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취약성에 대한 인지적 원인과 수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윤혜영,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걱정의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지적 편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통제감을 설정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걱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역기능적 인지적 도식이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수준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위협단서에 대한 인지적 정보처리 편향으로 볼 수 있다(Buhr & Dugas, 2002; Dugas et al., 2005; Freeston et al., 199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기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Koerner & Dugas, 2008). 완벽주의와 같은 여러 변인을 통제 한 후에도 걱정을 설명하는 가장 두드러진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Buhr & Dugas, 2006) 불안, 우울 등 정서상태를 통제 한 후에도 걱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eeston et al., 1994).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범불안장애 집단과 불안장애 집단, 비임상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이들을 구분하는 유용한 변인임이 밝혀졌고

(Ladouceur et al., 1999) 아동에게도 걱정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Fialko, Blton, & Perin, 2012). 지각된 통제감은 상황적인 요인과 사건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실제 통제감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유능감이나 통제감에 대한 실제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Weems & Silverman, 2006)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각된 통제감은 불안 통제감을 의미한다(Rapee et al., 1996). 지각된 통제감은 정서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Chapman, Kertz, & Woodruff-Borden, 2009). 불안장애를 가진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적 위협과 내적인 정서적 반응에 대하여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Rapee et al., 1996) 개인적 통제감은 걱정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최혜경, 1997).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수록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현진, 2013).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낮은 지각된 통제감은 통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인지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강민주, 현명호, 신여운, 2007). 어린 시절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지각된 통제감 부족이라는 심리적 취약성이 형성되고 이후 사건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인지 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Chorpita & Barlow, 1998). 이와 더불어 치료적 개입의 설계는 매개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매개변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격과 적응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대처는 중요한 매개과정이다. 이는 역경과 고통에 대한 반응이며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은 중요한 대처 전략이므로(Carver & Connon-Smith, 2010; D'Zurilla,

Maydeu-Olivares, & Gallardo-Pujol, 2011; Lazarus & DeLongis, 1983) 본 연구에서는 대처를 의미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 특히 그 중 부정적 문제 지향을 매개변인으로 택하였다.

사회적 문제 해결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실생활의 모든 문제 해결을 다루게 되며(Maydeu-Olivares & D'Zurilla, 1996)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인 목적이 있는 대처과정 또는 대처전략을 말한다(D'Zurilla & Chang, 1995; D'Zurilla et al., 2011). D'Zurilla와 Goldfried(1971)의 사회적 문제 해결 모델에 의하면 실제 생활에서 문제 해결 결과는 문제 지향과 문제 해결 기술이라는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되며(D'Zurilla & Nezu, 1990) 이 둘은 단일한 구성개념이 아닌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다. 문제 지향 척도는 문제 해결 기술 척도와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고 문제 지향은 문제 해결 기술보다 걱정을 비롯하여 부적응적인 기능 및 심리적 고통과 보다 더 관련된다는 선행연구(Belzer, D'Zurilla, & Maydeu-Olivares, 2002; Ladouceur et al., 1998; Ladouceur et al., 1999; Robichaud & Dugas, 2005a, 2005b)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기술 척도는 제외시켰다. 또한 부정적 문제 지향(Negative Problem Orientation:이하 NPO로 표기)과 긍정적 문제 지향(Positive Problem Orientation:이하 PPO로 표기)으로 구성된 문제 지향 척도 중 NPO만 매개변인으로 선택하였다. NPO는 역기능적 인지적-정서적 과정으로서 문제를 위협적으로 보고 해결할 수 없다고 믿으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다(D'Zurilla & Nezu, 199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비효율적인 반응방식을 나타낼 경향이 있으며 걱정에 빠지게 된다(김정원, 민병배,

1998). 이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효율적인 문제 지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으며 NPO를 내면화하게 되어 걱정이 유발된다(설승원, 오경자, 2008; Bredemeir & Berenbaum, 2008). 한편 사회적 문제해결은 대처과정이며 특히 NPO는 회피 대처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D'Zurilla & Chang, 1995) 의견에 따라 통제감 지각과 대처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의 통제감 지각이라는 인지적 특성은 대처방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의 불일치 상태가 심화되고 지속됨에 따라 더욱 부적응 적이고 역기능적인 대처방략을 유발할 수 있다(강민주 외, 2007).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통제를 행사하기보다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나 대처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왜곡 경향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걱정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채은옥, 이영호, 2008). 민하영과 유안진(1999)의 연구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아동 집단은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통제감은 문제 해결에 대한 행동수행을 동기화하지만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낮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형득, 최정윤, 1993). 국내에서 지각된 통제감과 NPO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나 앞서 언급한 연구를 통해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 학생 간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4년제 여대생은 전문대 여대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은, 2008) 전문대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고민은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 또한 전문대학 집단은 4년제 대학 집단보다 회피중심대처가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안녕감에서는 4년제 대학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박영신, 2012). 그리고 두 집단을 비교한 것은 아니나 상위권 대학과 비상위권 대학을 비교한 유계숙과 신동우(2013)의 연구결과 비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은 회피중심 대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의 변인에 대한 비교 연구는 부재하나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고 이에 *t-test*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 성차도 보고되고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걱정하는 경향이 있고(김지혜, 현명호, 2011; 오영아, 정남운, 2011; Robichaud, Dugas, & Conway, 2003)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점수가 더 높았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 보이는 파국화, 일반화, 선택적 오류를 측정하는 척도에서도 여자는 남자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오영아, 정남운, 2011; Cannon & Weems, 2010; Robichaud et al., 2003). 그리고 NPO 점수에서도 여자가 더 높았고(Bell & D'Zurilla, 2009; Belzer et al., 2002; D'Zurilla et al., 1998; Maydeu-Olivares et al, 2000; Robichaud et al., 2003) 이와 유사한 회피적 대처전략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김경아, 육성필, 2014). 그러나 지각된 통제감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점수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심현진, 2013; Gould & Edelstein, 2010)와 남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김지혜, 현명호, 2011; 조용래, 김은정, 2004; Cannon & Weems, 2010)가 모두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남녀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르거나 동일하게 나타난 기존연구(오영아, 정남운, 2011; 설승원, 오경자, 2008)에 따라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살펴본 NPO 외에 선행연구에서는 문제 지향(설승원, 오경자, 2008), 인지적 회피나 사고억제(김지혜, 현명호, 2011; Fialko et al., 2012; Robichaud et al., 2003), 경험적 회피(양경은, 박기환, 2014; 오영아, 정남운, 2011; 이정은, 조용래, 2007)를 제안하였다. 인지적 회피나 사고억제는 두려움을 인지적으로 회피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고를 억제하는 것과 관련되고 송수정(2009)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인지적 회피 질문지에서는 사고억제, 사고치환, 주의분산, 위협 자극 회피 등을 평가한다. 경험적 회피는 신체적 감각, 감정, 사고, 기억 등과 같은 내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이러한 내적 경험의 형태, 빈도 등을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Hayes et al., 1996). 인지적 회피 및 경험적 회피와 마찬가지로 NPO 역시 회피 대처 전략과 관련이 있고(D'Zurilla & Chang, 1995)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나 위의 두 변인과 다르게 NPO는 사회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삶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D'Zurilla & Goldfried, 1971)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대학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건 및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불행 관련 발생빈도를 보인 사건은 '취업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었고(김범준, 2011) 이들이 걱정하는 주제가 학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진로문제(금명자, 남향자, 2010; Gould & Edelstein, 2010)라는 점은 대학생 연구에 있어 실생활의 문제 해결과 연관

된 NPO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문제 지향을 다룬 연구(김정원, 민병배, 1998; 설승원, 오경자, 2008)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전체 문제 지향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할 수 있으나 NPO는 PPO보다 걱정을 비롯하여 부정적 정서 및 부적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Bell & D'Zurilla, 2009; Belzer et al., 2002; Chang, 1998; D'Zurilla et al., 1998) 두 개의 문제 지향 척도를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측정한다면 걱정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을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Robichaud et al. (2003)은 NPO만 유일하게 걱정의 증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NPO만 선택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고 이후 NPO만을 측정하는 NPOQ(Negative Problem Orientation Questionnaire: Robichaud & Dugas, 2005a)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이유 외에 NPO와 PPO는 하나의 문제 지향 차원에서 반대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므로(Maydeu-Olivares et al., 2000) 두 척도를 반대의 개념으로 보고 합하여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서로 부적인 상관을 지닌 반대되는 정서요인이 아니라 매우 뚜렷이 구별되는 차원으로 정의하였고 긍정정서가 낮다고 부정정서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제안하였다. 걱정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긍정적 사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Belzer et al., 2002)는 점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걱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NPO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본 연구에서는 NPO만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다. 비관주의와 부정 정서는 NPO에서 49%를 설명한 반면 낙관주의와 긍정 정서는 PPO에서 30%를 설명하여 공통된 변량의 양에서 차이가 나타나 심

리적 고통과 관련해서 두 척도는 상이한 변인으로 나타났다(Chang & D'Zurilla, 1996). 사회적 문제 해결 척도의 5개의 하위 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PPO는 '합리적 문제 해결'과 높은 상관관을 보였으나 NPO는 충동성/부주의 양식 및 회피 양식과 관련이 높았으며 '합리적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였다(D'Zurilla et al., 199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척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들어 걱정을 비롯하여 여러 변인과 NPO와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PO가 걱정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통제감이 걱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NPO가 이들을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모두 지니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그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지각된 통제감, NPO와 걱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걱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통제감, NPO 간의 구조적 모형은 적합한가? 셋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통제감은 NPO를 매개로 하여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각 변인은 학교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녀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 방 법

### 자료 수집 및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6개교, 전문대 1개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468명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자료 및 한 문항이라도 설문지를 완성하지 못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54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의 수는 총 414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1.13세(SD=2.5)였고 남자는 189명(45.7%), 여자는 225명(54.3%)이었으며 4년제 대학생은 343명(82.9%), 전문대 학생은 71명(17.1%)이었다. 학년에 따른 분포는 1학년이 129명(31.2%), 2학년은 143명(34.5%), 3학년은 57명(13.8%), 4학년은 85명(20.5%)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걱정 척도(PSWQ)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하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다. Meyer et al.(1990)이 개발하고, 김정원과 민병배(1998)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이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자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각 문항은 걱정에 대한 진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문항 예: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어 문항 순서대로 나누어 두 개의 지표변인(indicator)을 구성하였다.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US)

불확실성에 대한 정서적이고 행동적 결과,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 좌절 등이 포함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함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eston et al. (1994)이 개발하였고, 이후 Buhr과 Dugas(2002)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타당화시켰으며 본 연구에

서는 최혜경(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발자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Sexton과 Dugas(2009)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요인구조를 얻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와 동일하게 2개의 지표변인을 구성하여 분석에 적용시켰다. 요인1은 “uncertainty has negative behavioral and self-referent implications”(문항 예: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행동을 계속할 수 없다’), 요인2는 “uncertainty is unfair and spoils everything”(문항 예: ‘최고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소한 일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다.’)라고 이름 붙여졌다. 요인 이름이 문장형태로 다소 길어 요인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부정적 영향과 행동 손상”, “불공평성과 고통”으로 수정하였다. IUF1은 1, 2, 3, 9, 12, 13, 14, 15, 16, 17, 20, 22, 23, 24, 25번 문항으로 IUF2는 4, 5, 6, 7, 8, 10, 11, 18, 19, 21, 26, 27번으로 구성하였다.

#### 개정된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Revised K-ACQ)

불안관련 사건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Rapee et al.(1996)이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오윤희와 오강섭(2009)이 19문항으로 새롭게 개정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통제감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문항 예: ‘나는 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K-ACQ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오윤희와 오강섭(2009)은 질문지를 3요인으로 구성하였으나 개발 당시부터 요인구조에 대해서 연구자들 간에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고 Rapee et al.(1996)과 조용래와 김은정(2004)은

단일차원으로 볼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단일차원으로 보았다. 모든 문항들이 하나의 구성 개념만을 측정하는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이 가정될 경우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할 수 있다는(문수백, 2009; 서영석, 2010) 의견에 따라 문항꾸러미를 만들었다. 문항꾸러미는 요인분석을 실시 한 후, 문항들을 요인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모든 꾸러미들이 잠재변인(latent variable)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을 묶었고(서영석, 2010) 3개의 지표변인(indicator)을 구성하였다. 연구모델이 추정(identification) 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각 요인별 지표변인의 수가 두 개만 되어도 간명모델로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Bollen의 2-지표변인의 규칙(Bollen's two indicator rule)이라 한다(문수백, 2009). 그리고 요인이 2개 이상인 표준 모형에서는 각 요인별로 2개 이상의 지표변인이 포함될 때 모형은 추정된다는(Kline, 2005) 의견에 따라 3개의 지표변인의 구성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PCF1은 4, 7, 12, 13, 15, 16번 문항으로, PCF2는 1, 2, 6, 10, 11, 18번 문항으로, PCF3은 5, 8, 9, 13, 14, 17, 19번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부정적 문제 지향(NPO) 척도

부정적 문제 지향 척도는 개정판 사회적 문제 해결 검사(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SI-R)의 5개 하위척도 중 하나이다. SPSSI-R(Maydeu-Olivares & D'Zurilla, 1996)은 5점 척도, 총 5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이순(2002)이 번안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NPO는 문제를 위협이나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역기능적인 대처 및 태도를 측정하며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문항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나는 매우 좌절한다.’). PPO(5문항)와 합리적인 문제해결(20문항)은 건설

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나타내고 NPO, 충동-부주의 척도(10문항), 회피척도(7문항)는 역기능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국내 개정판 검사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63, .84, .91, .79,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NPO만 사용하여 .90로 나타났다. 단일 척도로 판단하여 지각된 통제감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NPO1은 1, 2, 12, 14, 15번 문항, NPO2는 3, 6, 7, 8, 11번 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지표변인(indicator)을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고 각 변인의 학교차이와 성차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Dubin-Watson, 공차,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하였고 왜도, 첨도, 정규산포도와 같은 단변량분포를 살펴보고 요인분석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KMO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분석한 후 모형수정을 하였으며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한지 비교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상관관계를 구하였고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는 대체로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지각된 통제감과 NPO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r=-.70, p <.01$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 $r=.65, p <.01$ ), NPO와 걱정( $r=.64, p <.01$ ), 지각된 통제감과 걱정( $r=-.61, p <.01$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NPO( $r=.60, p <.01$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통제감( $r=-.53, p <.01$ )의 순서대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들의 학교와 성별에 따른 차이

주요 변인들이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생 343명과 전문대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걱정,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지각된 통제감, NPO의 순으로  $p$ 값이 .30, .08, .38, .01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문대 학생의 NPO 점수는 4년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걱정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지각된 통제감	부정적 문제 지향
걱정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65**	-		
지각된 통제감	-.61**	-.53**	-	
부정적 문제 지향	.64**	.60**	-.70**	-

\*\*  $p <.01$

표 2. 주요 변인들의 학교에 따른 차이

변인	4년제 대학교(N=343)		전문대(N=71)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걱정	48.84	12.02	50.48	13.28	-1.03	.3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61.03	12.36	63.90	13.76	-1.75	.08
지각된 통제감	72.46	12.43	71.00	13.58	.89	.38
부정적 문제 지향	25.98	7.17	28.38	8.10	-2.51*	.01

\*  $p < .05$

표 3.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변인	남(N=189)		여(N=225)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걱정	47.00	11.81	50.90	12.35	-3.26**	.0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59.53	12.46	63.19	12.57	-2.96**	.00
지각된 통제감	75.67	12.52	69.30	12.00	5.27***	.00
부정적 문제 지향	24.34	7.21	28.11	7.09	-5.35***	.00

\*\*  $p < .01$ , \*\*\*  $p < .001$

제 대학생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두 집단을 함께 분석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각된 통제감에서만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나머지 변인들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모형 검증을 위한 사전분석

공차는 .44~.61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는 1.64~2.28을 보여서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가 될 만큼 다중공선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치의 *d*는 1.76으로서 자기 상관관계가 없고 잔차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KMO의 표준적합도는 .90~.95로 .5보다 큰 .9 이상을 보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모두 .00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41~.83이고 첨도는 -.29~6.40으로 나타났다. 정규산포도는 45도의 형태를 보이고 대각선을 따르는 직선 형태를 나타내므로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81에서 .94로 나타나 유의한 경로로 추정되었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증한 결과 RMSEA는 .06, CFI는 .99, TLI는 .98, RMR는 .02, GFI는 .97, NFI는 .98로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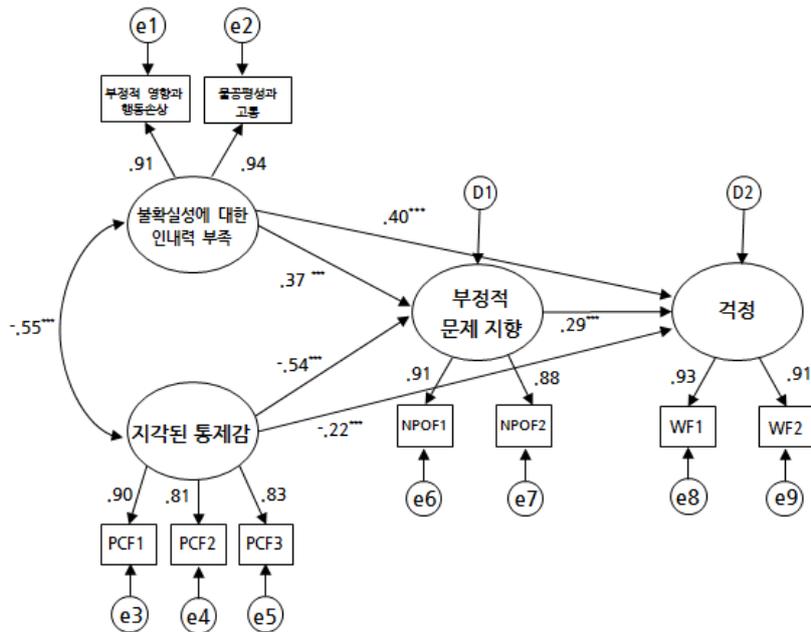
구조모형 검증과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는 유의하여 부분매개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C.R은 7.61이고, 지각된 통제감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관계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p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부정적 문제 지향	.56	.37***	.07	7.72	.0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걱정	.63	.40***	.08	7.61	.00
지각된 통제감 → 부정적 문제 지향	-.64	-.54***	-.06	-10.51	.00
지각된 통제감 → 걱정	-.27	-.22***	-.27	-3.30	.00
부정적 문제 지향 → 걱정	.30	.27***	.07	4.00	.00

\*\*\* p < .001



\*\*\* p < .001

그림 1.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부분매개모형

에서 걱정의 C.R은 -3.60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들이 걱정으로 가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완전매개하지 못하고 부분매개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고 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이 1개의 자유도 차이를 갖게 되는 내포모형(nested model)이 아닌 비내포모델(non-nested model)인 경우 비교하기 적합한 지표로는 AIC, CAIC, RMSEA 등이 있으며 이들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배병렬, 2013).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은 자유도 차이가 2이므로 내포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위에 언급한 적합도 지수의 순서에 따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104.87, 225.50, .06이고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165.43, 276.00, .10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보다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지각된 통제감에서 걱정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거나(대안모형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서 걱정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여 (대안모형3) 모형을 비교하여 보았으나 모든 적합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분매개모형이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과 여러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NPO를 거쳐 걱정으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 $p=.00$ )과 지각된 통제감에서 NPO를 거쳐 걱정으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 $p=.00$ )을 얻어서 NPO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효과분해표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남녀 집단 간 다집단 분석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한지 비교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 집단 간

표 5.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chi^2$	df	p	AIC	RMSEA	NFI	TLI	CFI
<b>연구모형(부분매개)</b>	<b>56.87</b>	<b>21</b>	<b>.00</b>	<b>104.87</b>	<b>.06</b> (.05-.09)	<b>.98</b>	<b>.98</b>	<b>.99</b>
대안모형1(완전매개)	121.437	23	.00	165.43	.10	.96	.95	.97
대안모형2	69.367	22	.00	115.36	.07	.98	.97	.98
대안모형3	112.61	22	.00	158.61	.10	.96	.95	.97

표 6. 구조모형의 효과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걱정	.63	.40***	.17	.10**	.80	.50***
지각된 통제감 → 걱정	-.27	-.22***	-.19	-.16**	-.46	-.38***

\*\*  $p < .01$ , \*\*\*  $p < .001$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에 구조모형의 요인부하량을 동치로 제약한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를 살펴보면  $\Delta\chi^2$ 는 9.63,  $p = .09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구조계수에서도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계수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Delta\chi^2$ 는 4.74,  $p = .16 > .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분산/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 는 1.33,  $p = .27 > .05$ 로 나타나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위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남녀 집단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5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p$ 값이 .63~.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8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걱정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통제감이 걱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NPO가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부분매개 모형을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학교차와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지각된 통제감, NPO는 모두

표 7.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Delta\chi^2/\Delta df$	$p$	RMSEA	NFI	TLI	CFI
모형 1: 형태 동일성	75.18(42)			.04	.97	.98	.99
모형 2: 요인부하량 동일성	84.81(47)	9.63/5	.09	.04	.97	.98	.99
모형 3: 구조계수 동일성	89.54(52)	4.74/5	.16	.04	.97	.98	.99
모형 4: 분산/공분산 동일성	90.87(55)	1.33/3	.27	.04	.97	.98	.99

표 8. 동일성 제약을 가한 남녀 집단 간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Delta\chi^2$	$\Delta df$	$p$	NFI 변화량	TLI 변화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부정적 문제 지향	.42	1	.52	.00	-.0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걱정	2.86	1	.09	.00	.00
지각된 통제감 → 부정적 문제 지향	2.06	1	.15	.00	.00
지각된 통제감 → 걱정	.23	1	.63	.00	-.00
부정적 문제 지향 → 걱정	.24	1	.63	.00	-.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5.16	5	.40	.00	-.00

높은 상관을 보였다. NPO는 걱정과 높은 정적 상관관을 나타냈고 이는 선행연구(Belzer et al., 2002; Ladouceur et al., 1999; Robichaud & Dugas, 2005b)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역시 걱정과 정적 상관관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김정원, 민병배, 1998; 설승원, 오경자, 2008; 오영아, 정남운, 2011; Buhr & Dugas, 2006; Freeston et al., 1994)와 일치되는 것이다. 지각된 통제감은 걱정 및 불안, 범불안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심현진, 2013; Rapee et al., 1996; Weems et al., 2003)와 일치되게 지각된 통제감은 부적 상관관을 나타냈다.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고 NPO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파국적인 결과들을 상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일상 생활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확실하지 않은 일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런 점은 우리가 견뎌야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를 견뎌내는데 취약하여 불확실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면한 상황에 대해 단점을 부각시켜 생각하는 잘못된 인지적 해석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결국 걱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낮은 지각된 통제감으로 인해 왜곡된 인지적 판단을 하게 되고, 불안장애의 인지적 평가요인으로 ‘대처능력의 과소평가’라는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어 이는 걱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김정원, 민병배, 1998). 따라서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 경우 NPO에 영향을 미쳐 좌절과 같은 정서적 반응 및 비효율적인 대처를 하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걱정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통제감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이미정, 200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걱정을 더 하게 되고 동시에 NPO를 촉발시키게 됨에 따라 걱정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PO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낮은 지각된 통제감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고 걱정의 발생에 선행하여 걱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취약성 변인과 더불어 NPO를 함께 다루는 이중적인 상담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학교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 학생의 NPO 점수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PO는 회피 대처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D’Zurilla & Chang, 1995)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 집단이 4년제 대학 집단보다 회피중심 대처가 높게 나타난 박영신(2012)의 연구와 상위권 대학과 비상위권 대학을 비교한 유계숙과 신동우(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전문대학은 짧은 기간에 많은 교과목의 이수와 현장실습 과정을 거쳐야 졸업을 할 수 있으므로 4년제 대학에 비해서 바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류윤석, 2012) 이는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가져와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 문제 지향은 대학생활 부적응, 불안,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김영미, 오경자, 1995) 전문대 학생들은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다 덜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어(박영신, 2012) 전문대 학생의 NPO 상승은 학교 부적응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정서도 덜 경험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대 학생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률은 2000년 4.9%, 2010년 7.3%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한국교육개발

원, 2010; 류윤석, 2012에서 재인용) 이에 비해 4년제 대학교의 중도탈락률은 2000년 3.6%, 2007년 4.1%로 높게 오르지 않아(교육통계연보, 2000, 2007; 손창수, 2009에서 재인용) 두 집단은 학업중단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전문대 학생은 4년제 대학생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전략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문대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과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짧은 대학생활 후에는 바로 취업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에 입문해야 하기에 전문대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고민은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 실제로 전문대 학생은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고(강정은, 2008) 이러한 낮은 효능감은 회피적인 대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적은 수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하였고 이들의 학교부적응과 진로 등에는 다른 변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NPO 상승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후속 연구에서 보다 정확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걱정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Gould & Edelstein, 2010; Robichaud et al., 2003)와 일치된 결과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점수에 있어서도 여자가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는 기존연구(오영아, 정남운, 2011; Robichaud et al., 2003)를 지지하는 것이다. NPO 역시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선행연구(Bell & D'Zurilla, 2009; Belzer et al., 2002; D'Zurilla

et al., 1998)와 일관된 결과이다. 반면 지각된 통제감은 남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심현진, 2013; Gould & Edelstein, 2010)와 일치되나 성차가 없다는 결과(조용래, 김은정, 2004; Cannon & Weems, 2010; Rapee et al., 1996)와는 상반된다. 이와 같은 불일치되는 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반추, 파국화와 같은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고 사고억제와 인지적 회피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Garnefski et al., 2004; Lewinsohn et al., 1998; Robichaud et al., 2003).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자는 시상하부-뇌하수체 부신 축과 교감 부신속질의 시스템의 조절 이상으로 불안장애와 우울이 발생되며 일생동안 생식 호르몬의 흐름이 과다하고 카테콜라민이 증가하여 남자보다 정서장애 발생비율이 높다고 밝혀졌다(Altemus, 2006). 또한 사회적으로 여자는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나 남자는 용감하게 행동하고 두려움에 맞서길 기대하고(Bem, 1981; Stoyanova & Hope, 2012에서 재인용) 정서표현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정서표현의 갈등은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주, 김정모, 2008). 이에 따라 여자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지 않으나 남자는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남자의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불안과 회피를 덜 보고하였으나 남녀 간에 심장 박동률은 차이가 없었다는(Stoyanova & Hope, 2012)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남자의 이런 경향성은 억제와 같은 단기적인 이득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이후 심장병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문

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Gould & Edelstein, 2010) 이후 오히려 남자에게 취약성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여성주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인영과 홍선희(2011)는 여성이 남성과는 차별화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제시하는 규범화되고 경직된 성역할이 여성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성에 기반한 왜곡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고 성역할과 관련하여 권력관계의 상호역동성을 파악하는 등 평등성에 기반을 둔 여성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면서 여학생은 여성성을 발달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최임숙, 2004) UN의 Human Development Index 발표 자료를 근거로 양성평등을 비교한 정연택(2008)의 연구결과 일본, 대만 또는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수치는 남유럽 및 유럽대륙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여자 점수의 상승은 유럽보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직된 성역할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다집단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에서는 성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르게 나타난 설승원과 오경자(2008)의 연구와 일치되지 않으나, 변인들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다집단 분석 결과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오영아와 정남운(2011)의 연구와는 일치된 결과이다. 이는 사용한 변인이 다르므로 걱정을 하게 되는 경로 역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겨지나 이후 좀 더 세심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지각된 통제감이 낮으며 한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위협적으로 보고 좌절하는 경향성이 높아 이러한 점이 걱정 점수의 상승으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여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한 반면 남자는 드러내길 꺼려하고 그 외에 규범화되고 경직된 성역할로 인해 여자의 점수는 남자의 점수에 비해 상승하고 남자의 지각된 통제감에서만 유독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생으로 국한시켜서 임상집단이나 다른 연령대 및 기타 지역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주의가 기울여야 될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유럽계 미국인보다 걱정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Chapman et al., 2009) NPO는 서구 학생들보다 아시아계 학생들과 더 관련된다(Chang, 1998; D'Zurilla et al., 1998) 점은 인종과 문화에 따른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으로 확대시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변인들이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문대 학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후속연구에서는 충분한 학생 수를 확보하여 명확히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전문대학의 집단수가 작기는 하지만 전문대 학생의 NPO 점수가 다소 높음을 확인한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두 집단을 함께 분석한 것은 참여자의 특성이 동질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4년제 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특성인 학업, 진로 등의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심리적 변인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후 전문대 학생의 NPO와 학업 및 진로와의 관련성을 연구한다면 학교 부적응, 학업중도탈락, 취업 등 실제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단기 횡단적 자기보고식 조사연구로서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설문지 연구가 지니는 주관적 왜곡과 반응 경향성으로 인해 측정된 점수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인과적인 관련성을 검증하거나 종단적 연구를 시행한다면 취약한 요인이 걱정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통제감이 걱정과 관련된 특정 취약성 요인이라는 점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기타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밝혀 걱정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타당성을 좀 더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문제 해결 척도의 각 하위척도 별로 타당화가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NPO만 사용하였고 문항수가 10문항으로 작은 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PPO도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연구에서는 PPO도 측정하여 비교하거나 긍정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명확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지각된 통제감 그리고 NPO와의 관련성을 전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상담 장면이나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지왜곡의 경향성을 수정하기 위하여 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걱정증상은 감소되었고 사전-사후 측정치의 변화량도 유의미하였다고 보고되었다(유성진, 2000). 몇몇 연구자들은 모든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내담자에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느낌을 자각하도록 하고 수용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거나 이를 유도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키도록 격려하도록 하였다(Bredemeir & Berenbaum, 2008; Ladouceur et al., 1998). 또한 Cannon과 Weems(2010)는 부정적인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더불어 불안 통제 신념을 검토하고 통제감을 촉진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지각된 통제 변인은 상황평가에 대한 대표적인 변인이며 불안을 감소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모든 부정적인 사건이 통제 하에 있다는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므로(강민주 외, 2007; 이민경, 김은정, 2013; Weems & Silverman, 2006) 내담자에게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 분별하도록 하고 통제 가능한 것을 상담 목표로 삼아 걱정을 감소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NPO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문제 지향은 문제 해결 치료의 첫 번째 단계로서 문제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과 관련되며 상황을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Nezu, 1987). Bell과 D'Zurilla(2009)는 문제 해결 치료(D'Zurilla & Nezu, 2007: Bell & D'Zurilla, 2009에서 재인용)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위한 효율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 해결 치료에서는 특히 NPO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지적 재구조화를 하여 문제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도전”으로 바라보도록 교육시키게 된다. 이미정(2002, 20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었고 비행 경험을 가진 청소년인 경우 NPO의 훈련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문제를 위협으로 보거나 스스로 성공

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는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이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적 개입과 교정적 프로그램으로도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걱정하는 주제가 취업, 학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보고되고 있어(김범준, 2011; 금명자, 남향자, 2010; Gould & Edelstein, 2010) 사회적인 실제 삶을 다루는 NPO를 통하여 이들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 연령층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NPO 점수가 더 높다는(Chang, 1998; D'Zurilla et al., 1998) 점은 대학생들의 NPO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 해결 기술은 측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언급은 주의가 요하나, 대학상담센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문제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및 신념, 대처 반응을 감소시키고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켜 걱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PO와 PPO는 독립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NPO의 완화가 PPO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NPO를 감소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적응적인 대처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추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변인에 따라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심리적 취약성을 더 보이지만 걱정의 심리적 기제는 동일한 경로를 거친다고 밝혀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이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일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신 건강에 있어 성차를 고려하는 것은 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Affi, 2007) 이를 바탕으로 상담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주, 현명호, 신여운 (2007). 걱정과 통제가능 여부가 통제력 지각 및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11-130.
-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권석만, 유성진, 정지현 (2001). 걱정이 많은 사람의 인지적 특성: 위협평가와 위협 대처에서의 인지적 편향과 파국적 사고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467-487.
- 금명자, 남향자 (2010).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생 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31(1), 105-127.
- 김경아, 육성필 (2014). 청소년의 따돌림 종류에 따른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2), 695-712.
- 김범준 (2011).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불행관련 사건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15-135.
- 김영미, 오경자 (1995). 대학생활 부적응 집단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301-311.
- 김정원, 민병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해결방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3-92.
- 김지혜, 현명호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및 지각된 통제력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149-1164.
- 류윤석 (2012). 전문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교수신

- 회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42, 245-263.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민하영, 유안진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학회지*, 21(1), 61-77.
- 박영신 (2012).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예비 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기질적 낙관성,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영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총*, 16(2), 113-138.
- 배병렬 (2013).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보건복지부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손창수 (2009).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경대학교.
- 송수정 (2009). 한국판 인지적 회피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515-531.
- 설승원, 오경자 (200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 통제감이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문제 해결 지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09-235.
- 심현진 (2013). 통제력 지각 및 통제욕구와 걱정과의 관계: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양경은, 박기환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조절곤란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87-201.
- 유계숙, 신동우 (2013).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6), 3849-3869.
- 유성진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 및 인지적 특성: 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성진, 신민섭, 김중술 (2003). 위협에 대한 재평가와 걱정증상, 상태불안 및 인지평가차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03-319.
- 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71-691.
- 오윤희, 오강섭 (2009). 개정된 한국과 불안통제 질문지의 요인구조: 임상, 비임상표본간 형태 및 측정동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995-1010.
- 윤혜영 (2012). 불안장애의 주의편향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6.
- 이미정 (2002).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99-218.
- 이미정 (2006). 청소년의 비행경험 수준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71-91.
- 이민경, 김은정 (2013). 모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 및 청소년 걱정과의 관계: 지각된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77-96.
- 이정은, 조용래 (2007). 걱정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일반화된 불안증상 간의 관계에서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939-961.
- 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 전문대학생의 학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경로 및 인과

- 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5(1), 95-111.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지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535-558.
- 정연택 (2008). 남유럽과 동아시아의 가족 및 성역할 태도와 상황 비교 연구. *사회복지연구*, 38, 61-91.
- 조선미 (2008). 일반심포지엄: 범불안장애 진단 및 치료의 최신지견. *한국심리학회 한국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524-525.
- 조용래, 김은정 (2004).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503-519.
- 채은옥, 이영호 (2008). 위협상황에서 걱정 많은 사람들의 대처 과정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2), 411-427.
- 최이순 (2002). 사회적 문제 해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13-428.
- 최임숙 (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통계청 (2013.11.8.).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에서 2013년 11월 8일 인출.
- 한인영,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 Afifi, M. (2007). Gender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Singapore Medical Journal*, 48(5), 385-391.
- Altemus, M. (2006).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Potential biological determinants. *Hormones and Behavior*, 50(4), 534-538.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ahmand, U. (2008).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8), 778-783.
- Bell, A. C., & D'Zurilla, T. J. (2009). The influence of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5), 439-448.
- Belzer, K. D., D'Zurilla, T. J., & Maydeu-Olivares, A. (2002). Social problem solving and trait anxiety as predictors of worry in a college student pop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4), 573-585.
- Borkovec, T. D., Robinson, E., Pruzinsky, T., & DePree, J. A. (1983a). Preliminary exploration of worr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1), 9-16.
- Borkovec, T. D., Wilkinson, L., Folensbee, R., & Lerman, C. (1983b). Stimulus control applications to the treatment of wor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3), 247-251.
- Bredemeir, K., & Berenbaum, H. (2008).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erceived threa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1), 28-38.
-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8), 931-945.

- Buhr, K., & Dugas, M. J. (2006). Investigat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ts unique relationship with worr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2), 222-236.
- Cannon, M. F., & Weems, C. F. (2010). Cognitive biases in childhood anxiety disorders: Do interpretive and judgment biases distinguish anxious youth from their non-anxious pe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7), 751-758.
- Carver, C. S., & Connor-Smith, J. (2010). Personality and cop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679-704.
- Chang, E. C. (1998). Cultural differences, perfectionism, and suicidal risk in a college population: does social problem solving still matt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3), 237-254.
- Chapman, L. K., Kertz, S. J., & Woodruff-Borden, J. (2009).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distress on worry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1), 69-76.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1), 3-21.
- Craske, M. G., Rapee, R. M., Jackel, L., & Barlow, D. H. (1989). Qualitative dimensions of worry in DSM-III-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ubjects and nonanxious control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4), 397-402.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K., & Phillips, N. A. (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1), 57-70.
- D'Zurilla, T. J. (1990). Problem-solving training for effective stress management and preven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4*(4), 327-354.
- D'Zurilla, T. J., & Chang, E. C. (1995).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problem solving and cop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5), 547-562.
- D'Zurilla, T. J., Chang, E. C., Nottingham, E. J., & Faccini, L. (1998). Social problem-solving deficits and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college students and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8), 1091-1107.
- D'Zurilla, T. J., & Goldfried, M. R. (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1), 107-126.
- D'Zurilla, T. J., Maydeu-Olivares, A., & Gallardo-Pujol, D. (2011). Predicting social problem solving using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142-147.
-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2), 156-163.
- Fialko, L., Bolton, D., & Perrin, S. (2012). Applicability of a cognitive model of worry to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50*(5), 341-349.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Garnefski, N., Teerds, J., Kraaij, V., Legerstee, J., & van den Kommer, T. (2004). Cognitive emotion

-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2), 267-276.
- Freeston, M. H., Rhé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6), 791-802.
- Gould, C. E., & Edelstein, B. A. (2010). Worry, emotion control, and anxiety control in older and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7), 759-766.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1168.
- Hunt, S., Wisocki, P., & Yanko, J. (2003). Worry and use of coping strategies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5), 547-560.
- Kertz, S. J., Bigda-Peyton, J. S., Rosmarin, D. H., & Björgvinsson, T. (2012). The importance of worry across diagnostic presentations: Prevalence, severity and associated symptoms in a partial hospital setting.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6(1), 126-133.
- Khawaja, N. G., McMahon, J., & Strod, E. (2011).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meta-worry: relative importance in discriminating GAD. *Behaviour Change*, 28(4), 181-194.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cond Edition*].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5에 출판).
- Koerner, N., & Dugas, M. J. (2008). An investigation of appraisals in individuals vulnerable to excessive worry: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5), 619-638.
- Ladouceur, R., Dugas, M. J., Freeston, M. H., Rhéaume, J., Bliais, F., Boisvert, J., Gagnon, F., & Thibodeau, N. (1999). Specific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ymptoms and processes. *Behavior Therapy*, 30, 191-207.
- Ladouceur, R., Blais, F., Freeston, M. H., & Dugas, M. J. (1998). Problem solving and problem orientation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2), 139-152.
- Lazarus, R. S., & DeLongis, A. (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 38(3), 245-254.
- Lewinsohn, P. M., Gotlib, I. H., Lewinsohn, M., Seeley, J. R., & Allen, N. B. (1998). Gender differences in anxiety disorders and anxiety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09-117.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athews, A. (1990). Why worry? The cognitive function of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6), 455-468.
-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6). A factor-analytic study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data. *Cognitive Theory and Research*, 20(2), 115-133.
- Maydeu-Olivares, A., Rodríguez-Fornells, A., Gómez-Benito, J., & D'Zurilla, T. J.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panish adaptation of the social

- problem-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4), 699-708.
- Meyer, T. J., Miller, M. L.,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6), 487-495.
- Nezu, A. M. (1987). A problem-solving formulation of depression: a literature review and proposal of a pluralistic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7(2), 121-144.
- Rapee, R. M., Craske, M. G., Brown, T. A., & Barlow, D. H. (1996). Measurement of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Behavior Therapy*, 27(2), 279-293.
- Robichaud, M., & Dugas, M. J. (2005a). Negative problem orientation(Part I):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new measu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391-401.
- Robichaud, M., & Dugas, M. J. (2005b).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Part II): Construct validity and specificity to wor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3), 403-412.
- Robichaud, M., Dugas, M. J., & Conway, M. (2003). Gender differences in worry and associated cognitive-behavioral variabl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5), 501-516.
- Sexton, K. A., & Dugas, M. J. (2009). Defining distinct negative beliefs about uncertainty: Validat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21(2), 176-186.
- Stoyanova, M., & Hope, D. A. (2012). Gender, gender roles, and anxiety: perceived confirmability of self report, behavioral avoidance, and physiological reactivi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6(1), 206-21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eems, C. F., & Silverman, W. K. (2006). An integrative model of contro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in childhood anxiet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1(2), 113-124.
- Zlomke, K. R., & Hahn, K. S. (2010).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gender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to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4), 408-413.

원고 접수일 : 2014. 08.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4. 10. 15.  
게재 결정일 : 2014. 10. 18.

## **The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erceived Control on Worry: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Cho, Sung-Yeon

Jo, Han-Ik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it was influenced on worry to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erceived control, and identify the role of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as a mediator.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the Korean version of th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nd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were administrated to 343 university students and 71 vocational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Independent *t-test* and multi-groups analysis were performed for comparing between groups: schools and genders. First,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ll variables were found. Second, the structural model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perceived control and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that affects worry was proved to be appropriate. Thir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mediated the paths from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erceived control to worry, and the direct paths from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erceived control was also significant. Forth, this study showed that vocational college group scored higher on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and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on all variables, but multi-groups analysis indicated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Limitation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worry, intolerance of uncertainty, perceived control, negative problem orientation